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Social Capital on Self-support Program Participants' Will of Self-reliance

Hyoung-Ha Lee*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identify factors that influence the will of self-reliance among workers participating in self-support programs. For this purpose, data were collected from self-support program participants in 2012 (1,301 participants in self-supporting labor programs and 128 in self-support community programs). Input variables analyzed as factors influencing the will of self-reliance were socio-demographic variables, self-esteem, and social capital.

According to the results, first, self-supporting labor program participants' self-esteem was 2.328 out of 4 (S.M=.402) and it was somewhat lower than 2.406 (S.M=.404) in self-support community participants, but the difference was not significant. Self-supporting labor program participants' social capital was 2.980 out of 5 (S.M=.844), significantly lower than 3.356 (S.M=.815) in self-support community program participants. Self-supporting labor program participants' will of self-support was 4.150 out of 5 (S.M=.602), lower than 4.314 (S.M=.521) in self-support community program participants. Secon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on self-support program participants' will of self-reliance, age ($B=-.198$, $p<.001$), self-esteem ($B=.236$, $p<.001$), and social capital ($B=.166$, $p<.001$)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That is, the will of self-support was higher when age was young, when self-esteem was high, and when social capital was high.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self-support policies, education systems, differentiated programs, etc. for enhancing self-support program participants' will of self-reliance.

▶ Keyword : self support program, will of self reliance, self esteem, social capital

I. Introduction

201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workfare program)인 자활사업은 계속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자활사업의 주요 내용은 첫째,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 제공하여 공동창업

지원과 공익적 자활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 둘째, 빈곤계층의 자활능력과 자활의지를 고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자활사업의 주요 내용을 달성하기 위해 재교육이나 직업훈련,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며, 나아가 사회적 서비스분야까지 근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유도한다[1].

그 대표적인 비판의 중심에는 낮은 탈수급률 인한 자활사업에 대한 성과의 문제였다. 자활사업의 성공은 중앙정부가 의도

• First Author: Hyoung-Ha Lee, Corresponding Author: Hyoung-Ha Lee

*Hyoung-Ha Lee (hhlee62@kwu.ac.kr), Dept. of Social Welfare, Kwangju Women's University

• Received: 2015. 08. 18, Revised: 2015. 09. 02, Accepted: 2015. 09. 07.

• This article have modified and extended papers ("Comparative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of Will of Self reliance on self-sufficiency works projects and self-sufficiency community project participants") in the 2015 Winter Conference Korea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하는 탈수급과 같이 국가의 생계비 지원 없이 경제적 자활을 이루거나, 자활사업 참여 경험을 토대로 취업하거나 창업을 통해 스스로의 생계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과 사업의 목표의 불일치, 참여자의 낮은 근로능력, 자활사업 추진 인력의 전문성과 인력의 부족 등은 자활사업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이다[2][3]. 특히 자활사업 참여자 대부분이 중장년층 빈곤계층 여성으로서 시장경제체제에서 불리한 인적자본을 형성하므로, 시장경쟁체제에서 취업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최근의 지속적인 세계적 경기불황 상황과 보충급여 방식의 정책적 한계와 연관되어 있다[4]. 자활사업 대상자는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급여특례가구원, 차상위계층, 시설수급자이다. 조건부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이며, 자활급여특례자는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이다. 근로무능력자인 일반수급자도 희망 시 자활사업에 참여 가능하다.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은 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을 의미한다. 차상위계층은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자를 의미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도 자활사업 참여 자격이 있다.

또한 자활사업 성과 미흡의 원인 진단과 관련하여 저학력, 고연령, 건강 미흡, 기술 능력의 부족 등과 같은 인적자본의 결여라는 특성과 낮은 자아존중감, 알코올 남용 등의 심리사회적 문제 등도 자주 지적되고 있다[5]. 이러한 측면에서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제적 자활로 자활성과를 논의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이에 최근에는 자활사업의 성과를 심리적 안정과 자존감 향상 등의 정서적 자활이나 조직헌신과 사회적응력 향상 등의 사회적 자활을 함께 강조하는 입장이 나타나고 있다[4][6][7].

그러나 자활사업이 추구하는 정책목표에 대해 자활사업 참여자 입장에서는 탈수급으로 발생하는 제도적 지원중단이라는 현실적 어려움 앞에서 고민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목표와 낮은 제도적 유인구조 속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자활성과는 참여자들의 '자립의지'라고 할 수 있다. 자활사업은 궁극적인 근로연계복지정책의 목적으로서 수급자들이 자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의 변화, 즉 자활의지를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8].

자립의지와 관련하여 자활사업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도 주요 영향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갖고 있는 빈곤이라는 특성은 현실적으로 취약한 사회자본을 가질 수 밖에 없지만,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들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사회자본도 주요 영향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사업에 참여자의 자아존중감, 사회자본, 자립의지는 어느 정도인가? 둘째, 자활사업 참여 유형에 따라 자아존

중감, 사회자본, 자립의지는 차이가 있는가? 셋째,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아존중감, 사회자본이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다.

II. Theoretical Background

1. Self-reliance Ethos

수급자의 자립의지는 자활의지와 혼용되어 사용되거나 자활의지의 하위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활의지는 “소득의 부재로 인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생계보호에 안주하지 않고 근로를 통해 스스로 자립·자활에 이르려는 동기, 열망을 포함하는 심리적인 능력”으로 정의하며[9], 자활의지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신감·통제력·문제해결의지를 표현하는 개념”이며[10], 근로의욕은 “경제적 자립달성을 위한 과정적 요소로서의 자활의지 수준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정의한다[11]. 기존연구가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의지를 ‘탈수급에 대한 바램’으로 비교적 일면적인 정의를 하고 있는데 반해, 최종혁, 김수완(2012)은 자립의지를 ‘각 개인의 일상적인 바램이 아닌, 일생에 걸쳐 환경에 의해 체득되는 태도, 성향’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12]. 즉, 자립의지는 자립하고자 하는 대상자의 심리적인 과정이나 욕구로서, 변화상황에 대한 자신감 및 자아통제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대상자들이 사회의 여러 가지 제도를 활용하고 생활의 변화를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고 설명된다[13]. 이정만(2012)은 자립을 이루고자하는 심리적 욕구로서 개인이 직면한 변화상황에 효과적인 대처를 하기 위한 개인의 적극적인 의지를 자립의지로 정의하였다[14]. 또한, 김부강(2013)은 외부 의존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설 수 있다는 생각과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 자신감, 자신의 상황에 대한 자기 통제력, 문제 해결의지 등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이 자립의지라 하였다[15].

따라서 자립의지는 자신이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되어 삶의 의미를 부여하며 경제적·정서적·사회적 빈곤으로부터 자활할 수 있도록 자기 결정과 자기 선택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에 따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심리적 자립이 포함되는 개념이며, 이는 빈곤층의 빈곤탈피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2. Self-esteem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 확신하는 정도로서, 자신의 태도나 외모, 그리고 어떠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16][17]. 그리고 자아존중감은 주위 사람과의 대인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달하게 되고, 특히 중요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자아존중감 향상의 요인이 된다. 특히 자활사업 진행과정에서 참여자 개인에게 부여된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은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믿음은 자활사업 내에서 가장 밀접한 자활사업 실무자와 동료들과의 관계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는 것이다[17]. 과거 자활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금전적 인센티브 요인을 중시하였으나, 단순한 인센티브가 가진 제한적인 효과가 확인되면서 최근 자존감, 자신감 등과 같은 심리·정서적 요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18]. 서구국가 가운데 미국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교육수준, 근로경험 등 인적자본을 중심으로 자활을 분석하고 있지만, 근래에는 정신건강이 자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19][20][21]. 그러나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우, 자신들이 스스로가 사회적 배제집단으로 인식하거나, 자신들이 수행하는 일이 전문성이 인정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크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인식으로 인해 낮은 자긍심을 가짐으로써 자아존중감 역시 낮게 가질 수 있다.

3. Social Capital

Bourdieu(1986)는 사회적 자본을 “지속적인 네트워크 혹은 상호 면식이나 인정이 제도화된 관계 즉,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획득되는 실제적인 혹은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이라고 하고[22], 어떤 행위자가 특정한 집단, 혹은 개인과 관계를 맺음에 따라 동원할 수 있게 되는 연결망의 크기와 그 연결망에 속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의 양에 따라 사회자본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Coleman(1988)은 “사회적 자본은 그것이 없으면 이루지 못할 어떤 목적의 달성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다른 형태의 자본과 비슷 하지만, 동시에 개인과 개인간의 관계 속에 내재 한다는 점에서 다른 자본과 차별성을 지닌다.”고 정의[23]하고 있다[24].

Putnam(1993)은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로 연대(tie), 규범(norm), 그리고 신뢰(trust) 등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축적된 사회적 자본은 스스로 강화되고 축적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25]. 박태정(2007)은 시장에 진입하여 자활에 성공하여야 하는 참여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의 크기와 질적 측면이고, 또한 관계망을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들 간의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면 정보의 공유 및 상호 지지도가 더욱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26]. 또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망이 형성되면 참여자들은 자활성공을 위해서는 서로 협동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의 이기심을 차단하여 집단 전체에 이익이 되도록 하는 규범적 요소가 적용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사업 참여 이후의 변화를 분석한 진재문 외(2009)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활사업 참여후 ‘내 자신과 내 능력에 대한 신뢰감 회복’, ‘대인관계에서의 자신감을 갖게 됨’은 높게 나타났으나, ‘자활에 필요한 관계망 기반의 마련’에 대해서는 낮게 나타났다[27].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회자본의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24]에 의하면, 사회적 자본 중 인지적 차원(가치, 태도, 규범, 신념)은 자립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구조적 차원(네트워크)과 관계적 차원(신뢰)는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III. Research Method

1.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부설 자활정책연구소 주관으로 이루어진 2012년 지역자활센터 사업 참여자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조사기간은 2012년 5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참여자를 직접 방문하는 ‘직접면접방식’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모집단은 전국 247개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과 자활공동체(기업)에 참여하는 수급자, 차상위 및 기타 저소득층이다. 최종 대상자는 지역자활센터 51개소에 소속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와 자활공동체(기업) 참여자였다. 최종적으로 자활근로사업단 1,301명, 자활공동체(기업) 128명이 조사되어 분석에 사용되었다.

2. Measuring Tools

본 연구의 주요변수로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로 성별, 연령대, 학력, 건강 상태(일상생활이나 직업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1점, 일상생활을 돌볼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나쁘다-4점), 만성질환 상태(3개월미만 투병·투약중-1점, 6개월이상 투병·투약중-3점)를 측정하였고, 심리적 요인으로 자아존중감 4점 리커트 척도 10문항, 사회관계성 요인으로 사회자본 5점 리커트 척도 12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종속변수인 자립의지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노동에 대한 동기’로 12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설문지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주요문항 구성은 아래와 같다(Table 1. 참조).

Table 1. The Main Measure Items

구분	문항	척도출처 신뢰도
자아존중감	10문항 4점척도	홍영수(2004) .830
사회자본	12문항 5점척도	송실대사회보장센터(2002~2004) 지역사회의 물질적, 정보적, 정서적지지의 수로 측정
자립의지	12문항 5점척도	정진경(2004) .790

분석결과 독립변수인 자아존중감의 신뢰도는 .561로 낮게 분석되어 1개문항(나는 대체로 실패한 사람으로 느낀다)을 제거 후 분석한 결과 신뢰도는 .602로 나타났다. 사회자본의 신뢰도는 .886, 자립의지의 신뢰도는 .80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IV. Results of the study

1. Characteristics of the main variables of the study subjects

참여자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2 참조). 첫째, 자

활사업에는 여성(자활근로사업 75.4%, 자활공동체 65.2%)이 남성보다 더 많이 참여하고 있었다. 연령대는 40-50대(자활근로사업 71.8%, 자활공동체 81.0%)가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자활근로사업 44.5%, 자활공동체 52.6%) 비중이 가장 높았다. 혼인상태는 이혼, 사별, 별거(자활근로사업 55.6%, 자활공동체 48.7%)가 가장 많았다. 만성질환은 없음(자활근로사업 64.9%, 자활공동체 80.6%)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일상생활이나 직업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자활근로사업 40.6%, 자활공동체 62.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Table 2. Summary of Resondent Characteristics

변수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305	24.6	40	34.8
	여자	934	75.4	75	65.2
연령대	30대미만	48	4.0	2	1.8
	30대이상	126	10.6	6	5.4
	40대이상	426	35.8	48	43.2
	50대이상	429	36.0	42	37.8
	60대이상	162	13.6	13	11.7
학력	무학,초등학교	273	22.4	18	15.5
	중학교	244	20.0	19	16.4
	고등학교	542	44.5	61	52.6
	전문대학이상	158	12.9	18	15.5
혼인상태	미혼	133	11.0	8	6.8
	배우자있음	391	32.5	51	43.6
	이혼,사별,별거	669	55.6	57	48.7
	기타	11	0.9	1	0.9
만성질환여부	있음	403	35.1	21	19.4
	없음	744	64.9	87	80.6
건강상태	일상생활을 돌볼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나쁘다	27	2.1	1	0.8
	일상생활을 돌볼 수 있으나 직업을 가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92	7.2	3	2.4
	직업을 가질 수는 있으나 힘든 일이나 많은 일은 못한다	637	50.0	42	33.9
	일상생활이나 직업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517	40.6	78	62.9

2.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of key variables

2-1. The average analysis of key variables

자아존중감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2.328(표준편차 .402)

로 자활공동체 참여자의 자아존중감 2.406(표준편차 .404)보다 낮게 나타났다. 사회자본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2.980(표준편차 .844)으로 자활공동체 참여자의 사회자본 3.356(표준편차 .815)보다 낮게 나타났다. 자활의지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4.150(표준편차 .602)로 자활공동체 참여자의 자활의지 4.314(표준편차 .521)보다 낮게 분석되었다. 따라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자아존중감, 사회자본, 자활의지는 자활공동체 참여자와 비교해 모든 영역에서 낮게 분석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자활의지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나 자활공동체 참여자 모두 4점이상(5점 만점)으로 매우 높은 자활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Table 3. The average analysis of the main variables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자아존중감	자활근로	1192	2.3280	.40220	.01165
	자활공동체	108	2.4046	.40427	.03890
사회자본	자활근로	1221	2.9800	.84467	.02417
	자활공동체	120	3.3569	.81508	.07441
자활의지	자활근로	1192	4.1509	.60272	.01746
	자활공동체	118	4.3143	.52132	.04799

2-2. Between-group difference in the analysis of key variables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와 자활공동체 참여자의 자아존중감은 유의미한 차이($t=-1.895, p>0.05$)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와 자활공동체 참여자의 사회자본($t=-4.679, p<.001$)과 자립의지($t=-2.841, p<.01$)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사회자본과 자립의지가 자활공동체 참여자의 사회자본과 자립의지보다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Table 4. Between-group differences in the analysis of the main variables

	F	t	자유도	유의확률
자아존중감	.052	-1.895	1298	.058
사회자본	1.301	-4.679	1339	.000
자립의지	2.390	-2.841	1308	.005

2-3. The main variables Correlation analysis

주요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표 4>와 같다. 종속변수인 자활의지는 독립변수인 연령대($r=-.228, p<.01$), 학력수준

($r=-.070, p<.05$)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자아존중감($r=.257, p<.01$), 사회자본($r=.158, p<.01$)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대가 높고,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자활의지가 낮고, 자아존중감이 높고, 사회자본이 높을수록 자활의지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table

	1	2	3	4	5	6	7	8	9
1	1								
2	.076	1							
3	-.001	-.079	1						
4	.048	.005	.430	1					
5	-.138	-.033	-.026	-.038	1				
6	-.012	.013	-.073	-.027	-.003	1			
7	-.020	.009	-.219	-.213	-.036	-.928	1		
8	.060	-.038	-.075	.047	-.006	-.125	-.001	1	
9	.107	-.075	.099	.195	.050	-.096	-.041	.143	1
10	.052	-.016	-.228	-.070	-.026	.036	.046	.257	.158

1.사업단 2.성별 3.연령대 4.학력수준 5.혼인여부 6.만성질환상태
7.건강상태 8.자아존중감 9.사회자본 10.자활의지

2-4. Regression analysis of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elf-reliance ethos

자활사업 참여 사업단에 따른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분석을 실시하기 전,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인에서 VIF 계수가 3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모형의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독립변수들을 모두 투입했을 때 자활의지의 변량(Variance)을 14.3%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F=18.611, p<.001$).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의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연령대($B=-.198, p<.001$), 자아존중감($B=.236, p<.001$), 사회자본($B=.166, p<.001$)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연령대가 낮을수록, 자아존중감과 사회자본이 더 높을수록 자활의지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엄태영 외(2008)의 연구결과[17]와도 일치하고 있다. 즉,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아존중감 정도가 정서적 자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성낙현(2014)의 사회적 자본 중 인지적 차원(가치, 태도, 규범, 신념)은 자립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24]와 일치하고 있다.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자아존중감'과 '사회자본' 요인이 사회인구학적 변수보다 상대적인 영향력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자활사업 진행과정에서 참여자 개인에게 부여된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망 형성을 통해 협동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공감대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하겠다. 부연컨대, 사회자본은 자활사업 참여자들 간의 집단정체성에 기반한 유대감과 공유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신뢰형성의 효과는 기존관계망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사회자본은 '자활성공'의 목표를 이루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사업참여자 및 실무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필요로 한다[26].

Table 6. Regression analysis of Self-reliance ethos

	B	B	t	VIF
(상수)	25.202		6.701***	
성별(남성=1)	-.005	-.004	-.134	1.025
연령대	-.011	-.198	-5.886***	1.312
학력수준	-.017	-.036	-1.086	1.302
혼인여부(사별, 이혼, 별거=1)	-.054	-.045	-1.514	1.029
만성질환	.020	.048	1.231	1.762
건강상태	-.040	-.050	-1.328	1.679
자아존중감	.305	.236	7.912***	1.035
사회자본	.107	.166	5.461***	1.074
사업단 (1=자활공동체)	.026	.021	.691	1.045
R ² = .143 F = 18.511***				

* $p<.05$, ** $p<.01$, *** $p<.001$

V. Conclusions

본 연구는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급 근로자의 자립의지를 규명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를 위해 2012년 자활사업 참여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분석결과, 자아존중감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2.328(표준편차 .402)로 자활공동체 참여자의 자아존중감 2.406(표준편차 .404)보다 낮게 나타났다. 사회자본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2.980(표준편차 .844)으로 자활공동체 참여자의 사회자본 3.356(표준편차 .815)보다 낮게 나타났다. 자활의지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4.150(표준편차 .602)로 자활공동체 참여자의 자활의지 4.314(표준편차 .521)보다 낮게 분석되었다. 둘째,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와 자활공동체 참여자의 사회자본($t=-4.679, p<.001$)과 자립의지($t=-2.841, p<.01$)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자아존중감($t=-1.895, p>0.05$)은 두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자립의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연령대($B=-.198, p<.001$), 자아

존중감($B=.236, p<.001$), 사회자본($B=.166, p<.001$)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연령대가 낮을수록, 자아존중감과 사회자본이 더 높을수록 자활의지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와 자활공동체 참여자에 대한 자립의지 제고를 위한 자활정책, 교육시스템, 프로그램의 차별화가 적용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와 자활공동체 참여자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연령대별 적합직종 개발, 자아존중감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사회자본의 확대를 위한 사례관리 강화 등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을 위해서는 경제적 자활 중심의 지표도 중요하지만, 참여자들의 강점개발 중심의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설계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황보람 외(2015)는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인문학 강의와 희망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시키기 위해 멘토로서 기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28]. 또한, 김정희(2013)는 “제2의 삶의 목표를 심어줌과 동시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임상적 프로그램의 제공되어야 한다.”고 하였다[29]. 이와 더불어 자활공동체 참여자의 사회자본에 주목하여 기존의 사업단 운영방식과는 달리하여 긍정적인 대인관계망 확대와 유지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도(지연, 학연, 혈연 망을 통한 일자리 찾는 데 필요한 적합한 유급 시간제공)를 도입하고, 참여자의 직업경력과 매칭되는 취창업 일자리 창출을 병행하는 좋은 거버넌스(governance) 전략도 필요할 것이다[30].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사회자본의 변인을 활용하여 자활의지와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동료들과의 신뢰, 네트워크, 상호 인정과 더불어 기존의 관계망 유지를 위한 노력 등이 자립의지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분석대상이 자활사업 참여자로 국한되어 있어 저소득 빈곤층 전체의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지 못하였다. 둘째,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여타의 변인들-자활사업 기관의 특성, 가족관계 관련 변인, 음주관련 요인, 자활서비스 질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REFERENCE

- [1] ihsong, jhpark, and ljkim, "Comparative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Willingness for Self-Sufficiency between the Aged and Non-Aged Self-Sufficiency Program Participant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33, No. 1, pp. 183-197, Feb. 2012.
- [2] dmno,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Self-Support Project,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orea Labor Institute, Feb. 2012.
- [3] mrlee, "A Study on the Effects of Self-support Program Participants` Social Capital on Their Quality of Lif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job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 42, No. 4, pp. 413-443, Dec. 2011.
- [4] hhlee, and wtcho, "Factors Influencing Self-Sufficiency Effect of Workfare in the Self-Sufficiency Promotion Agency," *Social Welfare Policy*, Vol. 20, pp. 217-244, Dec. 2004.
- [5] uhdo, and srlee, "Determinants of the Self-sufficiency Program Participant's Job-Search Efficacy,"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Vol. 15, No. 3, pp. 65-94, Aug. 2013.
- [6] wojung, and jgkim, "Subjective Evaluation of Public Assistance Recipients on the Self-Support Programs and the Future Prospect on Economic Independenc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 28, pp. 35-67, Sep. 2005.
- [7] tyum, and jslim, "Study on Self-support performance of Participants oh Self-support: Focusing on of Participants Local Self-support Center located in Dae-gu province," *Social Welfare Policy*, Vol. 41, No. 3, pp. 79-105, Sep. 2014.
- [8] Edward, M. E., Plotnick, R., and Klawitter, M., "Do attitude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Affect Social Economic Outcomes? The case of welfare by young women," *Social Science Quarterly*, Vol. 82, No. 4, pp. 817-827, Sep. 2001.
- [9] sekim,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Self-reliance Motivation and the Activities Related to Employment-Foundingofa Business in Self-supporting Program Participators," *Graduate School of Political Studies, Kyonggi University*, 2007.
- [10] yrpark, and chkang, "A Study on the Factors that Predict Low-Income Single Mothers' Sense of Self - Reliance,"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No. 3, pp. 91-116, May. 1999.
- [11] hkroh, "Study about causes of effect to self-support business participant's enthusiastic increase : Surveyed to participants in Seoul,"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Ehwa University*. 2004.
- [12] jhchoi, and swkim, "A Qualitative Study on Self-reliance Ethos of the Welfare-dependent Poor," *Journal of Korean*

-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Vol. 14, No. 4, pp. 165-200, Nov. 2012.
- [13] Halvorsen, K., "Symbolic purpose and factual consequences of the concepts "self-reliance" and "dependency" in contemporary discourses on welfare," *Scandinavi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7, No. 1, pp. 56-64, Jan. 1998.
- [14] jmlee, "A Study on Factors Affect Will of Self-Reliance of Participants in Self Support Programs,"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Chungnam University. 2012.
- [15] bkkim, "study about factors of lower income group women's self support will,"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Jeju University. 2013.
- [16] Trat, I., "Self-esteem in Later life," *A Nursing perspective Advances in Nursing Science*, Vol. 8, No. 1, pp. 77-84, Oct. 1985.
- [17] tyum, dkkim, and mkheo, "The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about staff at the community self-help center, support of colleagues and emotional self-support, and mediation effect of self-respect of female participants in self help program,"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Vol. 18, pp. 1-24, Dec. 2008.
- [18] syahn, ihku, and wjlee, "Determinants of Exit from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A Group-specific Analysis of Welfare Exit among Able-bodied Recipients," *Social Welfare Policy*, Vol. 38, No. 1, pp. 199-226, Mar. 2011.
- [19] Dooley, D., and Prause, J., "Mental Health and Welfare Transitions: Depression and Alcohol Abuse in AFDC Wome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30, No. 6, pp. 787-813, Dec. 2002.
- [20] Schmidt, L., Dohan, D., Wiley, J., and Zabkiewicz, D., "Addiction and Welfare Dependency: Interpretating the Connection," *Social Problems*, Vol. 49, No. 2, pp. 221-241, May. 2002.
- [21] swlee, ygiang, and jshan, "The Effect of Self-esteem on the Self-sufficiency Effectiveness: Mediated Effect of Drinking," Vol. 12, No. 2, pp. 29-44, Dec. 2011.
- [22] Bourdieu, P., "The Forms of Capital," in J. G. Richardson(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New York: Greenwood, 1986.
- [23] Coleman, S.,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4, pp. 95-120, 1988.
- [24] nhsung, "A Study of the mediation effects and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capital and empowerment in the influence of the social exclusion of the self-support program participants on their will for self-support," Graduate School, Daejeon University, 2014.
- [25] Putnam, R. D.,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2000.
- [26] tjpark, "A Study on development plan of self supporting program in Korea : based on the social capital perspective," Graduate School,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007.
- [27] jmjin, brhwang, and jilee, "Study on performance evaluation of Self-Reliance projects," Busan Social Welfare Development, 2009.
- [28] brhwang, jylee, yjkim, and emchoi, "The Mediating Effect of Hope on the Influence of the Quality of Self Support Service on Self Support Will," *Social Welfare Policy*, Vol. 42, No. 1, pp. 265-292, Mar. 2015.
- [29] khkim,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Participants's Welfare Dependency in Self-Sufficiency Program," *Social Welfare Policy*, Vol. 40, No. 4, pp. 83-108, Dec. 2013.
- [30] hhlee,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People's Social Capital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 19, No. 10, pp. 193-202, Nov. 2014.

Authors



Hyoung Ha Lee received the Ph.D. degrees in Social Welfare from Dongshin University, Korea, in 2004.

Dr. Lee joined the faculty of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t Kwangju women's University, Gwangju,

Korea, in 2004. Dr. Lee joined the faculty of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t Kwangju women's University, Gwangju, Korea, in 2004. He is currently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wangju women's University. He is interested in social welfare policy, law, and multicultural social welfare.